

집을 다시 꾸미고 싶으세요? 건물을 다시 짓고 싶으세요?

주택·건설·건축박람회
강원eco+홈페어2012
GANGWON ECO HOME FAIR
2012. 11. 29(목)~12. 2(일) 춘천 호반 실내체육관

GREEN

참여가능 업종

· 건축 자재	· 태양열/태양광/지열
· 가구 및 인테리어	· 욕실 및 주방
· 전원주택	· 냉난방 기기
· 주택 정보	· 청호재
·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 조명 및 전기 시설
· 조경 및 공공시설	· 건설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관람객 무료 체험 행사]

01 **에코 친환경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체험**
- 친환경 종이 액자 만들기, 이쁜 아가들 사진들 담아 주세요.

02 **에코 친환경 집 짓기 체험**
- 내손으로 똑똑 똑똑 집 짓기, 멋진 나만의 집 짓기 직접 체험하세요.

03 **에코 나눔 OCTION**
- 저렴한 비용으로 심도 고치고, 아려운 이웃도 도와 주세요.

참가신청 문의 : 강원에코홈페어 홈페이지 (www.ecohomefair.kr)
전 화 : 070-7098-8381
주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강원일보사 후원 강원도 | 춘천시 | 17개 시·군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에 김재원씨

경무관급 26명 보직인사

경찰청은 16일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에 김재원(52·사진) 경찰청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26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프로필 11면



이번 인사로 도 출신 최종현 경기청 제3부장(53·강릉)은 서울청 경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원청 차장을 역임한 백승호(48)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으로, 인제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허영범(54) 충남청 차장은 서울청 보안부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이에 앞서 도 출신 원경환(52·정선) 인천청 차장은 최근 서울청 101 경비단 경찰관리관에 임명됐고 정해룡(54·철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은 유임됐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로 일부 경찰서장의 직급을 1계급 높였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농업기술원장에 안진곤씨 간부공무원 4명 인사단행

도와 농업진흥청은 16일 안진곤(55·사진) 농업진흥청 고객지원단장을 신임 농업기술원장에 임명하는 등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조경호 원장은 농촌진흥청으로 복귀한다. 또 정병찬 연구개발부장은 신설되는 현안추진지원단장(TF), 안수용 원예연구과장은 연구개발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16일 강원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황영조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시상식에서 이희종 강원일보사장이 1부 종합우승팀 강릉시에 시상하고 있다(왼쪽). 이날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2부 종합우승팀 평창군에 시상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4일간의 희망 레이스 ... 강원마라톤 미래 봤다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

강릉과 평창이 '황영조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서 나란히 1, 2부 정상에 오르며 4일간의 도내 일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강릉은 대회 최종일인 16일 원주 시정을 출발, 횡성 흥전을 거쳐 춘천에 도착한 뒤 강원도청으로 끝인하는 24.5km 구간을 1시간23분56초로 주파, 속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종합기록에서 앞서 우승컵을 품지 못했다.

1부의 강릉은 고성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114km를 6시간28분03초로 풀인하며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세우고 역전마라톤 메카임을 입증했다. 강릉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마지막 날 구간을 1시간23분42초

강릉 5연패·평창 4연패 위업

속초·양양 각 부 2위 올라

유승엽·이세정 '최우수선수'

로 달리며 1위에 오른 속초가 종합 6시간35분27초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삼지여중·고 반곡중 등이 역주를 펼친 원주가 6시간36분34초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춘천이 6시간54분22초로 4위 삼척과 태백이 각각 5위와 6위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2부에서는 평창이 마지막 날 구간을 1시간26분11초로 역주를 펼친 가운데 종합 6시간37분27초로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스키명문인 진부중·고와 도암중 선수들이 주축이 된 평창은 첫날부터 사흘째까지 정상에 오르며 마지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순위		1부		2부
1위	강릉시	6:28:03	평창군	6:37:27
2위	속초시	6:35:27	양양군	6:43:11
3위	원주시	6:36:34	고성군	6:44:15
4위	춘천시	6:54:22	영월군	6:51:46
5위	삼척시	7:11:17	정선군	7:03:01
6위	태백시	7:13:08	양구군	7:10:37

※ 장려상-동해시, 감투상-철원군

마달 고성에 뒤졌지만 초반 기록단축에 따라 대회 4연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양양은 종합기록 6시간43분11초로 1위에 6분여 차로 뒤져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6시간44분15초를 기록한 고성에서 1분4초 차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6시간51분46초를 거둔 영월이 4위에 올랐으며 정선과 양구

가 5위와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날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의 뒤를 이을 기대주에게 주는 황영조상은 삼척대표 김사현(강릉 명륜고)과 평창대표 이의진(도암중)이 차지했다.

또 속초대표로 출전한 유승엽(한국제대)과 고성대표로 나선 이세정(도정)은 1부와 2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향후 기량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마라톤 선수로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마련한 신인상에는 원주대표 이규성(반곡중)과 양양 대표 강혜주(강현초)가 선정됐다.

중학교 남자부 우승은 삼척의 박정음(소담중)과 평창의 김민우(진부중)가 받았으며 여자부에서는 원주 이민은(삼지여중)과 고성 김현희에게 돌아갔다.

강원마라톤의 부활과 꿈나무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육상경기연맹의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이 기사는 강원일보TV(www.kwnews.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최우수선수상 /

훈련 매진 플코스 정상 오르고파

1부/속초 유승엽(한국체대)

속초 대표로 나선 유승엽(한국체대)이 전국체전에서 활약한 뒤 이어 열린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처음으로 나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 유승엽은 첫날 자신의 고향 속초에서 역주를 펼쳐 박수를 받았으며 마지막 날 달린 흥천구간에서는 구간 1위를 차지하기도. 속초 조양초교를 즐



업한 그는 설악중 2학년 때 대구와 서울로 전학, 이후 서울체고를 졸업한 뒤 현재 한국체대에서 중장거리 선수로 활약 중. 올해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 5,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한 그는 "열심히 훈련해 마라톤 정상에 오르겠다"고 다짐.

강철체력 바탕 고성군 3위 이끌어

2부/고성 이세정(강원도청)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고성 이세정(강원도청)은 올해 전국체전 여일반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육상 스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이세정은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고향인 고성



군의 대표선수로 출전해 고성군을 2부 종합 3위로 이끈 장본인. 이세정은 "고향인 고성에서 우승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도 3위에 그쳤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운동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

/ 신인상 /

내년 전국소년체전 메달 후보 꼽혀

1부/원주 이규성(반곡중)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원주 대표로 출전한 이규성(반곡중)이 대회 최고 기대주에게 주는 신인상을 받는 영예를 차지. 마지막 날 원주와 춘천을 잇는 횡성을 시가지에서 펼친 소구간에 나서 3.8km를 12분54초로 풀인하며 구간 우승까지 거머쥐는 쾌거.



치약초교 5학년 때 육상선수로 발탁, 올해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했으며 내년에는 메달후보로 꼽힐 정도로 성장. 이규성은 "열심히 뛰었는데 좋은 성격이 나쁘다"며 "내년에도 출전해 원주가 우승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웃음.

올해 대회가 발굴한 최고의 기대주

2부/양양 강혜주(강현초)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강혜주(양양 강현초 6년)는 뛰어난 스피드의 소유자로 2부 신인상을 당당히 수상. 양양 대표로 출전한 강혜주는 초등학교 5년 여름방학부터 운동을 시작한 육상 꿈나무. 교육감기 역전마라톤 구간상, 도지사기 육상대회, 학



년별 육상대회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발전 가능성을 선보이며 이번 대회가 발굴한 최고의 기대주. 강혜주의 언니 강혜림(속초여고 2년)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뛰어난 활약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육상 재능이 양양군의 종합준우승을 이끌어 화제.